

##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제 2보)<sup>+</sup>

방기정 · 김경희\*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전임강사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Make-up Design with Application of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Ver. 2)

Bang Keejung · Kim Kyunghee\*

Full-time Lecturer, Dept. of Beauty Health Management, Daeje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 Abstract

Hybrid implies that elements in more than two are combined, and is what is merged and used complexly the technologies and materials in several field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progress in technology. In the formative and artistic aspect, the hybrid can be said to be phenomenon that two of mutually different genres are combined. The function and form in each genre, which were combined at this time, are remained wholly or partially, thereby revealing as well without hiding a fact of having been combined.

In the digital communication era, the same time level was integrated into one culture, with destroying the temporal-spatial boundary. As f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the aim is to suggest a model for researching into make-up by grasp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ybrid art through considering an art theory of hybrid, which was shown in make-up. Second, the aim is to design make-up by analyzing trend by make-up style after applying the genre deconstruction in hybrid. The modern make-up design through genre-deconstruction characteristics beyond diverse plurality and genre could be known to be highlighted as aesthetic characteristic by a slight attempt as communication of open space, which connects culture and genre, which had failed to be recognized and was neglected.

---

<sup>+</sup>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ould be known that there is infinite possibility in developing make-up design in line with modern sensation through aesthetic element and symbolic significance through genre deconstru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s significance can be said to be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offering new sight to the design &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the expression mode in future make-up, to providing basic data, and to strengthening competitive edge of culture and art.

**Key Words** : Genre Deconstruction (탈 장르), Hybrid (혼성), Makeup (메이크업), Makeup Design (메이크업 디자인)

## I. 서론

디지털 시대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문화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디지털 유목민의 생성과 그들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었다. 각각의 미디어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하며 매체간에 단점을 상쇄시키고 각종 자원을 공유하며 매체간의 특징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미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예술 양식의 혼재 경향을 보이고, 하나의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메이크업은 얼굴을 통한 외모 표현에서 심리상태를 표시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정신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여 자신의 성,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성격을 알려주므로 무언의 의사 소통에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인류역사와 함께 뷰티 (beauty) 문화는 발전해 왔고, 뷰티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융합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메이크업도 여러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양식의 혼재로 인해 상품과 사용자간에 상호 작용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개개인의 취향이 존중된 제품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인간과 제품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의사소통의 개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sup>1)</sup>. 메이크업은 시각적, 정신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예술로,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의 예술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중심으로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메이

크업 방향을 예측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탈 장르의 고찰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련의 흐름을 분석하고 응용하여 미래 방향 예측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형태를 통하여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을 통한 체계적인 메이크업 디자인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실용 예술인 메이크업에서 과거 적용되었던 메이크업의 원칙들에서 벗어나 혼재된 변화적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생활속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탈 장르화 특성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하여 앞으로 메이크업의 디자인 및 조형적인 특성과 표현양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범위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응용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하이브리드 개념과 특성의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출판된 단행본 및 간행본,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연구 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21세기 한 예술사조인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개방적이고 절충적 예술성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은 총 4점으로,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4작품 중 작품 I~II는 민속적 요소 2작품, 작품 III~IV은 과학 기술적 요소 2작품으로 디자인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특성

#### 1)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특성

하이브리드(hybrid)는 그리스어로 ‘오만한, 주제넘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라틴어로는 ‘섞여진, 잡종의, 혼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2)</sup>. 하이브리드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료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각각의 물건이나 상품 등에 혼합되어 제작된 것을 말한다<sup>3)</sup>. 하이브리드의 흐름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적 경계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세계와 지역 등의 경계가 붕괴되었고,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 또한 모호해졌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 많은 변화와 흐름이 있지만, 예술 사조의 큰 흐름이 하이브리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를 중심으로 메이크업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

하이브리드의 등장은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출현하였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 보려면, 먼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드워드 텔러(Edward B. Tyler: 1832~1917, 미국)는 “문화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얻게 되는 습관, 도덕, 예술, 지식, 신앙, 법률을 비롯하여 이외의 다른 어떤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the complex whole)이다”<sup>4)</sup>라고 말하였다. 문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는 독특한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권’이라는 복합체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문화 특유의 요소’란 가족과 국가 등의 사회제도, 종교, 경제, 도구를 포함한 문화의 각 측면과 그것들의 독특한 복합체를 뜻하며, 이러한 문화복합체는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문화’ 복합에서 독자적인 특정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문화는 예술적이면서도 지적활동으로서의 전통적인 예술

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부터 저널리즘, 패션, 광고까지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sup>6)</sup>.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인종의 만남과 그로 인해 세계화되는 문화양상은 다양한 기능과 미를 조합한 복합제품을 만들어 낸다<sup>7)</sup>.

선행 연구에서 김자민, 하지수(2005)는 차별가치적 소비개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고, 하미희(2009)는 시간, 문화, 성(性), 기술적 요소의 특성으로 공차숙(2008)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현, 하위문화 등장, 남성 역할의 변화, 매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수인(2005)은 비 독창성, 몰 형식성, 탈 중심성, 상호 텍스트성으로, 김경인(2008)은 시공, 스타일, 성, 이질적 요소, 문화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백정현(2009)은 탈 경계성, 기술 지향성, 감성 지향성, 시공간의 혼재성으로 구분지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전반에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혼합 및 융합이란 뜻으로 이중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인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통합코드로 보았고, 위에서 제시한 특성 중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사회·문화적 측면, 조형·예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이동을 통한 장소와 민족을 초월한 지역과 문화의 결합으로, 조형·예술적 측면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융합되어 있는 상대로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 라는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탈 장르화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인식 체계는 미디어가 조성하는 시각체계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건축에 등장한 하이브리드는 어떠한 사조나 양식을 표현하기 보다는 복합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개념은 다원성과 규범체제의 고정

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복합성 즉, 구조, 기능, 기술, 미에도 내재되어 있으며, 16세기 후반의 매너리즘(Mannerism) 및 18~19세기의 절충주의 그리고 20세기 초의 과도기에서 비롯되는 매우 포괄적이며 넓은 적용범위를 갖는다<sup>9)</sup>고 한다. 회화나 사진의 개념을 통해 매체를 서로 '교차'시켜 매체의 장르 허물기가 시작된 이유와 방향성을 연구한 작가인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1932- , 독일)는 늘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고, "나는 어떤 특정한 의도도, 체계도, 노선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따라야 할 어떤 강령도, 양식도, 과정도 없다. 나는 일관성이 없으며, 무관심하고 수동적이다. 나는 불확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좋아한다"<sup>10)</sup>.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그는 자신과 작품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관찰자의 위치에서 무관심하게 작품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그림 1><그림 2>는 두 경계에서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진의 흐린 효과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이미지에 집중하게 한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며 그의 장르를 초월한 작업은 장르를 수직적 상하위치에 있던 매체들을 수평적 위치로 재정립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제작 기준의 코드가 되었다. 탈 장르의 이러한 특성은 두 경계의 모호한 측면으로 인해 오히려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이미지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이처럼 열린 디자인은 탈 장르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화 개념은 불확정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Singer 1965,  
-www.gerhard-richter.com



<그림 2> Elisabeth I, 1966,  
-www.gerhard-richter.com

## (2) 다원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은 21세기 정보화 사회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대중예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예술은 미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 삶의 한 의미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도피적 또는 대리체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중예술의 의미영역이 거짓과 도피와 대리체험만으로 채워진 것만은 아니고 만만함속의 진지함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모더니즘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거하여 사고해 왔으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모든 유형의 이원적인 대립 체계의 구분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모호해지게 되었다<sup>12)</sup>. 그리하여 이전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의 기반은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거나 의미의 부재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전의 모든 중심주의와 형이상학, 인간주의적 세계관, 시·공간적 경계 등이 해체되어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사고체계가 형성되었다<sup>13)</sup>. 창의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온 미하이 칩센트 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1934- )교수는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관계에 주목한다"<sup>14)</sup>고 밝혔다. 이같은 능력은 전문화된 지식이 빠르게 일상적인 업무로 변화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야 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 간에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다중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다중모드에서 일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1세기의 창의적 인재상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Boundary Crosser)

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5)</sup>. 그러므로 하이브리드의 다원화를 창의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즉 경계를 넘어서 문턱을 낮추어 이것저것 섞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다원화는 가장 중심에 있는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다.

(3) 융합화

융합(融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 지는 일<sup>16)</sup>이며, 융합성이란 장르 내의 분화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첨단과학 또는 산업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장르를 모두 포함한 열린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이는 예술가의 기존 작품이 제품 디자인에 결합되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예술은 차별화된 가치를 지녀서 개인이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up>18)</sup>. 인터넷과 컴퓨터 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 장르 간에 퓨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통합과 융합은 문화전체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sup>19)</sup> 이렇게 전략적인 제휴나 장르간의 퓨전은 다양한 절충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절충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절충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희랍 철학에서이며, 19세기의 미술과 건축, 20세기의 포스트모던 건축에서도 재출현하였다. 건축에 나타난 역사적 절충주의는 19세기 후반의 전통적 절충주의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등장한 급진적 절충주의로 대별되며, 이들 모두 과거의 양식을 참고로 한 역사적 절충을 나타내고 있다<sup>20)</sup>. 탈 권력에 의한 경계의 와해로 중심화, 총체적, 국제적 보편성, 획일성으로서의 열망은 종말화 되었으며 다원성으로 이행되었다. 또한 불확정성에 의한 다원주의에 따른 숭고미 그리고 그의 기법에서 비롯된 반 형식주의적 혼성모방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21)</sup>. 이렇듯 융합성은 하이브리드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서 절충과 혼합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화의 특성은 무차별적으로 섞고,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절충적 재구성할 수 있다.

(4) 유희화

유희(遊戱)란 영어로 ‘플레이(Play)’, ‘페스타임(Pastime)’, ‘메리메이킹(Merrymaking)’등으로 사용되어지며, 유희화란 미학적 의미에서 놀이(Play)의 개념으로 인간은 놀이를 하는 존재이며, 놀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목적일 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sup>22)</sup>을 뜻한다. 유머는 현대인의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고의 수단으로 과거에는 저급한 문화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머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sup>23)</sup>. 유희는 보고 웃고 싶은 감정을 말하며 대체로 외부로부터 받은 정취나 감동으로 지적되며 밝고 화사한 정감을 일컫는다<sup>24)</sup>. 유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흥미의 세계, 감흥의 세계, 착각의 세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그린 것이 곧 낭만주의 예술이며, 유희의 내재된 의의가 뚜렷해진다<sup>25)</sup>. 레나토 포지올리(Renato Poggioli, 1907-1963)는 파스콜리(Pascoli)의 ‘유아의 미학’과 예술사와 시학의 분양서 영국인들이 ‘년센스 시’라고 부르는 장르들이 ‘탈출’의 개념에 바탕을 두며, 그 탈출은 사물들이 불변의 정확성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로의 도주를 의미한다<sup>26)</sup>.고 하였다. 유희성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을 위해 반 고전주의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다. 최근에는 인간의 논리적인 면과 감각적인 면을 통합한 ‘감성’이 중요한 디자인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즉 감성(感性)이란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가치, 개성, 취향, 기분을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2.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

1)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이란 용어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것에서 유래한 페인팅(Painting)<sup>28)</sup>과 화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치장을

가리키는 투알레트(Toilette), 또는 연극에서의 분장을 의미하는 마퀴아주(Maquillage)<sup>29)</sup> 등으로 표현된다<sup>30)</sup>. 20세기 초부터 메이크업은 대중들에게 일반화되는 개인의 취향으로 자리 잡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다<sup>31)</sup>. 1900년대의 메이크업은 19세기의 연장으로 상류여성의 잘 정돈된 성숙미를 가진 화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구 상류층의 화장이 러시아 발레단과 디자이너 폴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의 의상의 영향과 함께 동양적인 취향의 화장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01년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j Pavlovič Dágilev, 1872-1929)가 인솔한 러시아 발레단의 선풍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그로인해 페르시아, 터키풍의 요소가 장식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10년 파리는 동양풍의 유행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양풍에는 중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도 가미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반쯤 감긴 눈과 조그만 입의 심술긋은 여자 등을 묘사하였다<sup>32)</sup>.

## 2) 메이크업의 특성

조형적인 입체성을 갖는 디자인에서 시각적 관심과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조형요소는 점, 선, 면이다<sup>33)</sup>. 현대 회화의 순수 추상작가인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한 논고'에서 회화의 원천적인 조형요소인 '점', 제 2차적인 요소로서 점이 모여 이루어진 '선', 긴장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면'을 회화의 요소로 보았다<sup>34)</sup>. 점(dot)은 이와같이 다른 기하학적 형태나 자유자재로 임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메이크업에 표현되고 있는데, 크기에 따른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의도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주며 메이크업 포인트로 사용한다<sup>35)</sup>. 선(line)은 모든 시각예술의 형태표현 단계로 이용되고, 상대에 따라 운동감과 질감, 양감의 표현도 달라지며<sup>36)</sup>. 눈썹(eyebrow), 아이라인(eyeline), 입술라인(lipline) 등에 사용되어지며, 굵기나 두께에 따라 표현되는 이미지가 달라진다. 아이 새도우(eye shadow)나 블러셔(blusher)도 운동감과 질감, 양감의 변화를 통해 선적인 터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가해지

는 힘에 의해서 생겨난 직선과 곡선의 형태로 좌우 대칭, 비례, 균형, 유기적 통일감을 고려하여 얼굴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기교로 사용한다<sup>37)</sup>. 면(space)은 얼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형과 색을 갖는 아이 새도우나 블러셔, 입술에서 볼 수 있다. 아이 새도우나 블러셔의 가시적인 면은 다양한 컬러와 함께 입체감을 주어, 수정의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입술의 면은 색채의 힘을 빌어 메이크업 구성으로서의 영향력을 갖는다<sup>38)</sup>. 형(形)은 2차원적인 세이프(shape)와 3차원적인 폼(form)이 있다<sup>39)</sup>. 메이크업의 형태는 2차원과 3차원적인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갖는다. 얼굴의 형태는 이목구비의 형태에 따라서 세이프와 폼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sup>40)</sup>. 형태는 크게 얼굴분석을 위한 형태와 눈, 코, 입 등의 표현을 위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얼굴형은 곡선형과 직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위의 선이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으로 부드럽고 우아하며 온화한 느낌, 넓어 보이고 귀여우며 여성적 느낌을 준다<sup>41)</sup>. 비일상적인 색채의 사용은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고, 색채의 부드러움 및 다채로움의 특징적인 속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균형을 이룬다. 메이크업은 회화적 특성을 갖는 색채예술로 색채의 응용과 적용이 가장 중요하며, 의상과 모발색, 눈동자 색과 피부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이루어지도록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sup>42)</sup>. 현대인에게 있어 색채는 가장 솔직한 정보매체이며 감각적 효과에 있어서 호소력이 강한 요소 중의 하나로 메이크업 유행 색상과 패턴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자유로운 내적 이미지의 표출로써 다양성을 갖는다<sup>43)</sup>. 스테이지(stage) 메이크업과 아트(art) 메이크업에서는 제한적인 색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색채 선택의 폭이 넓고 사용이 자유롭다. 과도하게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 생략하거나 극도로 색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색의 적절한 조화와 대비, 강조에 따른 배색에 의한 기발한 색채 사용으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보여 준다<sup>44)</sup>. 그리고 질감에 의해서 가볍고 무거운, 여러가지 변화되는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분 조절에 의한 질감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sup>45)</sup>. 메이크업에

서는 주로 파운데이션(foundation)의 종류와 파우더(powder)의 종류 및 양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는데, 최근에는 색채보다 질감을 강조하는 유행으로 오일(oil)이나 펄(pearl)에 의한 광택선호 등 질감 표현이 매우 다양해졌다<sup>46)</sup>.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의 질감 표현은 평면적인 표현법이 아니라 시각적, 촉각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3차원적인 표현 방법이다<sup>4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특성 중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메이크업의 시대별 특징

1900년대 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정적인 생활이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생활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대량생산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또한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sup>48)</sup>. 이 시대에는 전형적인 전통 메이크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소 인위적이고 어색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10년과 20년대는 코올(kohl)을 이용하여 위, 아래 짙게 표현하여 솟으로 그린 것 같은 새까맣고 일자형의 눈썹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지 않는 어색한 형태와 눈 주위가 움푹 꺼져 보이도록 음영을 강하게 넣었다<sup>49)</sup>. <그림 3>은 1920년대로 피부는 아주 창백하게 보이고 눈썹은 깨끗하게 밀어 아주 둥글고 가늘게 아치형의 눈썹으로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하트 모양을 연상한 느낌의 작고 동그랗게 표현하여 다소인위적인 메이크업이 성행하였다<sup>50)</sup>. 1930년과 40년대는 붉은 피부톤으로 눈썹은 아치형으로 얇게 가늘게 그렸으며, 아이홀(eyehole)의 음영을 강조하고 긴 인조 속눈썹을 이용하여 눈매에 신비함을 연출하였으며 입술은 볼륨감 있는 형태로 반짝이는 붉은 색을 칠했다<sup>51)</sup>. <그림 4>와 같이 아름다운 눈매와 신비로운 미소를 강조한 시각에서 강하고 관능적인 여성미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두껍고 뚜렷한 곡선 형태의 눈썹과 아이핀슬로 눈꼬리를 치켜 올려 눈꼬리를 강조하였으며 적당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입술을 선호하였다<sup>52)</sup>. 1950년과 60년대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1926-1962)는 밝은 피부톤에 아이홀에 음영을 주고 아웃

커브 형태의 붉은 입술과 애교점을 찍었으며, <그림 5>는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 1929-1993)의 밝고 깨끗한 표현과 눈썹을 굵고 질게 그렸으며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를 살짝 들어 올려 사슴같은 눈매로 연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sup>53)</sup>. 1960년과 70년대 히피족은 눈을 커 보이게 연출하는데 주력하여 쌍꺼플 부분에 진한 회색으로 두꺼운 라인을 그리고 핑크나 담비털 등을 사용한 인조 속눈썹을 붙였으며, 밝은 핑크빛의 글로시한 립스틱을 사용하여, <그림 6>의 패션모델인 튀위기(Twiggy)는 정렬적이면서 다소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sup>54)</sup>. 펑크(punk)족은 밝고 진한 피부표현과 직선적인 눈썹, 회색과 검정색, 어두운 와인색 계열의 아이섀도우와 검붉은 색의 립스틱을 발랐다. 1980년과 90년대에는 펄(pearl)이 들어간 화려한 다양한 컬러가 유행하였는데, 황금, 노랑색 펄을 눈두덩이에 바르고 펄이 들어간 볼터치를 사용하고 짙은 립스틱을 발라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여배우들과 같은 자연스러운 화장법이 유행하였다<sup>55)</sup>. <그림 7>. 20~30년대의 복고풍 메이크업과 에콜로지(ecology)풍으로 연출하였으며, 펄과 반짝이를 이용한 사이버(cyber) 분위기의 아방가르드식(Avant-garde) 메이크업으로 패션쇼나 잡지 모델들이 사용하던 화장기법이 젊은이들 사이로 퍼져 나갔다<sup>56)</sup>. 1900년대 후반부터는 대중문화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메이크업은 여러가지 절충되고 해체된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등장하여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도에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융합화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혼합과 붐피가 여러 예술분야에서 경계를 허물어 상호-절충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났다. 이 시대에는 전형적인 전통 메이크업 스타일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정신적인 메시지를 메이크업을 통해 자유롭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질감과 형태 표현으로 다양하게 부각시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소재 자체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극단적 대비를 통한 상호-절충적인 면도 나타났다<sup>57)</sup>. 눈 형태나 위치를 무시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면이 아닌 점이나 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볼 화장은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

하여 새로움과 다양성을 창출하였다. 입술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형성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부정하고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여 한 장의 캔버스에 취급하여 다양한 낚서나 그림을 연출하여 표현하였다<sup>58)</sup>. 질감과 색상은 필을 이용한 메탈릭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춘 그래픽 질감의 표현으로 풍부한 효과를 제시하면서 조형성을 가미해 나타냈다<sup>59)</sup>. <그림 8>에서는 강렬한 원색으로 표현하여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하고 소재나 패턴의 사용에 있어서 무한히 다양해진 첨단 감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방가르드의 특성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이 되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은 현대 예술에 있어 하이브리드적 요인과 상당부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sup>60)</sup>. 절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편화된 현상은 하이브리드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 탈피 또한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되었다<sup>61)</sup>. 다원화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기술의 발전은 스타일간의 융합, 문화 변화에 따른 장르의 파괴, 서로 다른 업계와의 협업, 전자기기의 유입현상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up>62)</sup>. 메이크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역시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의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3)</sup>. 선행 연구에서 하미희(2009)는 시간, 문화, 성(性), 기술적 요소의 특성으로, 공차숙(2008)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현, 하위문화 등장, 남성 역할의 변화, 매스 미디어 영향으로의 유형 분류하였고, 백정현(2009)은 탈 경계성, 기술 지향성,

### III.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

21세기 전유물로 인식되어진 타 장르와 예술들 사이의 혼합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아방가르드들의 실



<그림 3> 1920년대  
Max factor's Hollywood:  
Glamour1995



<그림 4> 1940년대  
Max factor's Hollywood:  
Glamour1995



<그림 5>  
1950년대, 오드리헵번  
(www.style.com)



<그림 6>  
1960년대 메이크업  
(www.vogue.co.kr)



<그림 7>  
1980년대 메이크업  
(www.style.com)



<그림 8>  
2004 Christian Dior  
(www.style.com)



감성 지향성, 사공간의 혼재성으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장르와 장르의 혼합과 해체 과정을 통한 발전된 사고의 새로운 시도와 융합의 개념으로 보고, 경계 해체성을 계층 해체와 사공간의 혼재,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을 민속적 요소의 혼합과 과학 기술발달과 절충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인 후속 연구 제 2보로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1.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통한 절충과 혼합성이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절충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등장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대두된 현상으로 그 특성을 하나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하나의 간단한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64)</sup>. 제임슨(F. Jameson, 1934-)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특성을 혼성 모방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양식을 모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순수한 창의성의 문화라기보다는 인용적 상호 텍스트적 문화이다<sup>65)</sup>. 서양에서의 동양 문화를 섞는 혼합문화의 시도는 누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개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단편화된 시각으로 인지하여 복합, 혼합시키는 개념으로 하이브리드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sup>66)</sup>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특징은 서로 다른 것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복합, 혼합시켜 믹스하는 것으로 혼합과 절충성을 보여준다. 제임스 레버(James Laver, 1899-1975)가 “복식은 육체의 의복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의 의복이며 그 시대나 사회의 생활 감정의 표현 내지는 상징으로서 존재하며, 사회적·문화적 경향의 거울로 문화현상의 뉘앙스를 반영한다”<sup>67)</sup> 라고 했듯이 메이크업은 각 시대의 문화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메이크업이

다. 에스닉(ethnic)은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갖게 된 모습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민속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할 수 있다<sup>68)</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성은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는 자유분방한 표현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풍자(pardy)나 혼성모방(pastiche)의 기법을 반영하며, 형식과 규칙을 무시, 기괴하고 추한 것을 반영한 낭만주의<sup>69)</sup> 또한 과도한 장식이나 이국적 요소의 수용을 통해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서 민속적 요소의 혼합과 다원성,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과학 기술의 발달과 유희와 테크놀로지의 특징적인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탈 장르화 특징에서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을 민속적 요소와 과학 기술적 요소 두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민속적 요소의 혼합

21세기를 대표하는 다문화주의를 상징하는 문화는 특정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산물이고 이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다른 문화간의 대화에서 생성되면 형성 및 재형성의 장에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70)</sup>. 민속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속풍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여 서양복식의 인위적, 건축적 형태에서 벗어나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를 수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sup>71)</sup>. 민속적 요소의 혼합은 에스닉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에스닉은 ‘인종의’, ‘민족의’, ‘민족 특유의’<sup>72)</sup>라는 뜻을 가지며, 서양에서는 그들 기독교 문화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을 말하며, 각 민족고유 의복이나 문양, 장식, 액세서리에서 영감을 의미한다. 세계 전역의 고유한 민속 복식을 절충하는 다원적인 태도는 국제성 속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sup>73)</sup>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양면 가치를 증대시켜 민족성에 대한

양면가치는 무경계적인 혼성주의로 나타나며, 타 문화권의 이미지를 도입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끼리의 복합적인 이미지 차용 등 전통적·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을 뛰어 넘는 다국적 혼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속적 요소의 혼합은 유럽 민족 외에 세계 여러나라 민족 고유의 복장을 한 것을 가리킨다. 민속적 요소의 혼합은 터키나 인도, 일본, 중국, 아프리카의 민속 의상, 유럽, 아메리카 인디언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이 메이크업에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의 재등장한 스타일은 다양한 분위기가 믹스, 매치되어 더욱 풍부한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sup>74)</sup>.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트렌드는 신비한 동양의 모방에서 발전되어, 여러 민족적 컬러들을 다양하게 혼합시킨 민족 융합적인 창조적 결과로 민족적으로 근원을 명확하게 갖고 있거나 민족 융합적인 새로운 코드는 그 자체가 글로벌이 되어 가고 있다<sup>75)</sup>. 이처럼,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민속적 요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민속적 요소의 혼합과 다원성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비서구화와 요소와 지역화 요소 두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비 서구화

현대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문화 간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 민족의 고유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으며<sup>76)</sup>. 비서구적이며 다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비 서구란 미국과 유럽이외의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 고유의 특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것으로, 이는 비기독교 문화권의 민속을 가리키면서 기독교권 국가라도 그 지역 토착 원주민들의 전통복식까지 포함한다.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켜 그 동안 무가치하고 소외되었던 미적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서구 중심적이었던 획일적 미의식을 부정하여 다양한 미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sup>77)</sup>. 메이크업의 비 서구화 스타일은 비 서구 지역의 고대 화장법이나 인종적 특성을 묘사한 메이크업을 말한다. 비 서구화 요소에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젠 스타일(Zen Style)로

나눌 수 있다. 이전의 오리엔트는 극동이라 불리고,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를 중동,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일대를 극동 또는 원동이라 불렀으며<sup>78)</sup>, 오늘날에는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 지역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과거 동양의 이미지를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표현하거나 전통의 라인을 현대적 소재와 병합, 전통문양의 재해석, 현대적으로 응용한 연출방법, 전통문화 이미지의 사실적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하이브리드가 나타나고 있다<sup>79)</sup>. 이러한 서양의 시각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현상과 맞물려 동양을 종속적 비하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미적 표현의 기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뉴 오리엔탈리즘(new orientalism)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sup>80)</sup>.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善一研究, Zen no Kenkyu)에서 젠은 선(禪)의 동양적 이미지들이 서양으로 건너가 ‘젠’이란 이름으로 되돌아 온 것인데, 서구의 모더니즘에서 발원한 미니멀리즘이 90년대 후반 동양의 선 철학과 접점을 이루면서 밀레니엄의 새로운 화두인 젠이 탄생하게 되었다<sup>81)</sup>. 젠의 표현은 동양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양적 느낌의 유형과 색상을 사용하는데, 붉은 색상으로 대표되는 동양풍의 메이크업이 주변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메이크업은 하얀 피부표현과 함께 검정색의 눈썹과 붉은색의 입술, 눈, 볼이 주조를 이루게 하는 경향이 있다<sup>82)</sup>. 구체적인 표현을 설명하면 동양 여성처럼 작게 오므린 듯 한 형태의 입술화장, 속눈썹을 표현한 과장된 선들은 동양적 신비감을 표현하여 독특한 에스닉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짙은 눈썹과 눈꼬리를 길게 뻗 아이라인 등 에스닉하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sup>83)</sup>. 각 민족의 다양하고 강렬한 색상과 민족적 특징을 21세기의 숙련된 테크닉으로 얼굴에 표현함으로써 특히 동양적인 여성 분위기의 이국적 느낌을 세련미와 신비스러움<sup>84)</sup>, 그리고 섹시한 여성미로 재창조 하였다. <그림 34>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1960- )의 작품으로 적은 형태의 입술과 검붉은 색의 색상을 통해 선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눈 화장 부분의 그라데이션을 통해 동양적인 이미지의 색상을 사용하여, 서양인이 생각하는 동양적 이미지를 충실하게 재현하였다. 하

안 얼굴의 베이스 메이크업 표현과 검은색의 눈썹과 검붉은 색의 입술로 경극 화장의 컬러 베이스가 이용되어, 일본과 중국 문화의 혼합적인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2) 지역화

지구 곳곳의 고유한 민속 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갖게 된 정보시대의 패션은 서구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85)</sup>.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민족적 요소의 메이크업이다<sup>86)</sup>. 1980~199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온 민속복식 패러디는 2000년대 들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0년 이후 컬렉션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복식은 환상적인 에스닉 룩을 탄생시켰다. 또한 러시아와 모로코, 알프스 지방의 민속적 요소가 나타나는 에스닉풍이 컬렉션을 장식하였다. 존 갈리아노(그림 22)의 의 메이크업은 중동과 인도풍의 화려한 사리(sari)를 연상시킨다. 뿌옇게 연출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피부와 볼 부분의 면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통해 중동풍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서양인의 폐일한 피부 표현과 움푹 패인 눈화장을 통해서 중동 인도풍의 이미지와 서양인의 느낌을 혼합하여 표현하고 있다.

2) 과학기술의 발달과 절충

디지털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 전반적으로 확산된 다원주의의 경향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중의 감각을 자극하고 이를 라이프스타일에 반영시킴으로서 다양한 감성의 디자인을 창출하였다. 또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sup>87)</sup>. 윌슨(Edward O. Wilson, 1929- )은 과학과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융합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의 저서 '통섭'은 학문들 사이의 경계를 가로 지르고 분자들이 원류를 찾아서 이를 하나로 껴는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sup>88)</sup>. 과학과 미디어의 관계는 상위에서 하위로 정보가 흐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진 독자적인 시스템 사이의 상호 작용

이 되며, 이럴 때 다른 시스템들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sup>89)</sup>. 대중매체의 특징은 자유로운 감정의 발산과 해방감을 위해 기존 장르나 개념을 변형, 과정, 이질적 요소의 도입 및 기존의 위치에서 이탈시켜 엉뚱한 곳에 배치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의 미를 추구한다<sup>90)</sup>. 서로 다른 전공의 벽을 깨고 융합으로 얻어지는 창의적인 결과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문화라는 점을 받아 들여야 한다<sup>91)</sup>. '과학의 예술가'인 마이켈슨(Albert Abraham Michelson, 1852-1931)은 과학적 이해의 본질이 대상에서 경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은 물리학자가 시인일 수 있다면 연구 대상이 불러 일으키는 총만감과 거의 존경에 가까운 느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up>92)</sup>.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징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화의 대중화를 통해 유희적 성향과 복합적인 절충성을 보여준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발달은 탈 장르화 특성에서 기술주의적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낙관론은 다른 장르의 코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하이브리드 장르화 해가는 경향을 띤다<sup>93)</sup>. 비관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웰빙,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 꾸미지 않은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는 동양 철학을 반영하여, 인위적인 것을 거부, 자연 그대로의 형태와 색채, 소재를 통해 순수한 이미지를 추구한다<sup>94)</sup>.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현대인의 생활은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확대되고 현대 디자인에서 테크놀로지는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디자인을 돕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디자인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예술과 디자인에서 미(美)를 결정하는 인자가 되었다<sup>95)</sup>.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사회적 이슈는 바로 웰빙(Well-being)이다. 지구 환경 파괴에서 오는 위기감에서 시작해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재나 아이템이 개발되고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과학 기술적 요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과 과학 기술의 발달, 유희와 테크놀로지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자연적 요소와 유희적 요소 두 가지로 유형 분류하여 고찰하고

자 한다.

(1) 자연과 테크놀로지

자연과의 절충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밝은 이라는 단어로 집약되어 여성들의 의식이 딱딱하고 긴장 상태보다는 자유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추구하는 태도로 변모했다<sup>96)</sup>.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예술에 도입된 다양한 매체들은 예술에 새로운 장르들을 탄생시키면서 현대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의 역할을 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대중화된 컴퓨터는 인터넷의 글로벌화와 함께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개념미술, 설치미술 등 타 매체, 장르와 결합하여 ‘컴퓨터 아트(Computer Art)’라는 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sup>97)</sup>. 21세기에는 내추럴 메이크업, 누드(nude) 메이크업, 창백하고 차가워 보이는 페일 메이크업 스타일이 함께 공존하였고, 다양한 색상을 약간 가미해 개성있게 표현된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또한 베이지색, 상아색, 갈색을 이용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은 1960년대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재등장하게 되었다<sup>98)</sup>.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으로 비움으로써 채울 수 있는 기능형태를 지니고, 결국은 순연한 질서에 귀의하려는 도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을 반영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꾸미지 않은 듯 한 순수하고 편안해 보이는 형태’의 자연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자연을 동경하고 회귀하고자 하는 심리가 표현된 것이다<sup>99)</sup>. 내추럴 이미지는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디자인들로 에콜로지, 원시 등의 분위기가 여기에 속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활동적이며 생기에 넘치는 이미지가 연출되게 색상의 이미지로는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유사색의 조화 및 동일색의 조화를 통한 이미지이다<sup>100)</sup>. 과학적 접근 시도, 첨단 테크노와 퓨전 등 디지털 시대라 불리는 첨단 테크노 시대로 사이버틱하고 테크노적인 메이크업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기계 문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마음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01)</sup>. <그림 38>은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 1969-2010)의 메이크업으로 자연의 진화를 통해 기술에 의한 미래에는 파충류가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과장스러운 헤어와 조형적으로 파충류를 형상화하였고, 얼굴에 인조왁스나 인조피부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그 위에 색조를 넣지 않은 피부표현을 통해서 자연과 과학기술적 요소의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2) 유희와 테크놀로지

디지털에 의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급진적인 발전은 많은 혜택과 편리함 이면에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선호하게 되었다. 풍자나 해학적인 유희성은 감상적인 것으로 현대 생활의 기계주의에 대해서 작용한다. 유희성은 패러디(parody)와 풍자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유희함과 충격적 요소, 왜곡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난다<sup>102)</sup>. 디지털 시대에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유희를 그 자체로써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미의 요소와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퍼놀로지(funology)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켰다<sup>103)</sup>. 유희와의 결합은 유희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어린 시절의 순진무구함을 나타내는 유아기적 요소와 오브제의 사용, 위치의 전환 등이 특징이다. 퍼놀로지에 의한 유희성은 재미와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환상을 표현하는 유아적 스타일이나 큐트한 컬러 또는 환상적인 컬러 레인지, 대담한 형태와 함께 우주적이고 만화적인 캐릭터의 등장, 팝 아트적인 요소가 가미된 디자인이나 그래피티(graffiti) 아트가 주요한 도구, 시각적 재미, 촉각적 즐거움, 사용상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소재가 활용되기도 한다<sup>104)</sup>. 그리고 키치의 낭만주의적 경향인 팝아트로 표현하는데, 1960년대 등장한 팝 아트는 저급예술, 혹은 대중문화의 고급예술의 진영으로의 진입을 알린 미학적 양식으로 전유된 키치의 영향력이나 의의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실이다. 키치의 불행, 반복, 권태로서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키치의 낭만주의적 경향은 주된 매력이다<sup>105)</sup>.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도입, 얼굴의 조형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버

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흥미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탈 장르화 특성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은 진지함속의 만만한 유머적 표현을 다양한 대중문화와의 혼합과 절충성으로 보여 준다. <그림 41>은 존 갈리아노의 메이크업으로 팝 아트적이고 큐트하고 선명한 컬러와 과장된 눈 화장과 볼 부분의 볼터치를 이용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과장된 헤어 연출과 함께 인형같은 재미의 혼합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마치 인형을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 IV.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

##### 1. 디자인 기획 및 방법

작품의 색채 기획은 주조색으로는 동양의 절충적 이미지를 통한 오방색을 중심으로 모든 색의 혼합인 검정색의 비중을 높였으며, 포인트로 빨강색, 흰색 등의 색을 이용하였다. 중심색으로는 빨강색과 파랑색의 혼합 형태인 보라색 색상의 비중을 높여서 사용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을 이용하였다. 자연과의 결합은 갈색을 중심으로, 자연 회귀, 인간성 회복 심화 등의 포인트로 초록색을 사용하였다. 시각 및 촉각적 즐거움을 위한 유희는 선명하고 다양한 컬러의 색채 사용을 통한 가벼움을 표현하고, 투명한 느낌을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질감 기획은 광택이 없는 질감과 마른 질감의 비중을 높여 기획하고

무겁고 딱딱한 느낌의 질감을 위주로 기획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유목민들의 생활과 사용 필요성에 의한 트렌드에서 휴대성의 증가와 가벼움의 선호로 인한 가벼운 형태의 윤이 나는 질감과 투명하고 가벼운 느낌을 중심으로 기획하였다. 조형미 분석에 따라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하게 디자인하여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헤어와 조화롭게 하여 인체 조형예술 작품으로 재구현하였다.

##### 2. 작품 제작

본 작품은 다운화의 혼합과 부적합한 형태와의 결합, 전형적인 스타일의 탈피와 도형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탈 형태로 작품 제작을 기획하였다.<표 1>

##### 1) 작품 I - 전통적 다운화 소녀(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

동양 전통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 다운화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혼합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표 2>의 작품 I은 일본의 가부키 화장과 중국의 경극의 화장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한국의 금줄을 매는 전통 풍습 중에서 숯을 매는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한 동양 소녀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동양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새로운 다운화의 형성을 통해 비 서구화를 중심으로 일반화장과는 달리 과장되어 표현하였다. 점과 면의 절제된 형태를 통한 동양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색채는 가부키와 경극을 연상시키는 흰색의 피부 표현과 빨강색과 검정색의



<그림 21> John Galliano IV, 2007 F/W Collection (www.vogue.co.kr)



<그림 22> John Galliano V, 2009 F/W Collection (www.vogue.co.kr)



<그림 23> Alexander McQueen III, 2010 S/S Collection (www.vogue.co.kr)



<그림 24> John Galliano VII, 2008 S/S Collection (www.vogue.co.kr)

<표 1> 작품디자인 기획

유형	형태	특성	이미지	표현 방법	색채	소재
탈장르화 특성	대중화의 절충과 융합성	인속적 요소	비서구화 전통다문화 소녀는 여러 다문화 이미지 복합적 표현	-동양, 제 3국의 전통적 이미지 사용하여 오리엔탈 이미지 표현 -하얀색 피부표현, 검정과 붉은 컬러의 배합 통한 절제된 표현 -여백의 미를 강조, 동양 전통적인 사상과 다양한 차용 -혼합 다원화된 형태 표현, 소재, 질감, 형태, 색채 면에서 비교 -전통적 규범을 부정하여 미완성 메이크업 추구	검정(BK) 흰색(Wt) 빨강(R) 주황(YR)	수성컬러, 브러시, 크라운 파운데이션, 매트화이트파우더, 새도우
			지역화 에스키모의 외출은 제 3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이용 강조. 중앙아시아 몽골인 이미지 차용	-탈 중심적 성격의 복합문화주의 표현 -여러 다양한 색상의 조합과 혼합, 팝아트적 요소의 표현 -인위적 과장된 강한이미지 부각 통한 자유와 독립성 표현	파랑(B) 빨강(R) 분홍(RP)	수성컬러, 브러쉬, 화운데이션, 매트화이트 파우더, 새도우, 아쿠아 새도우, 눈효과소품 등
	과학 기술적 요소	자연 밀링의 원시소녀는 밀링 원시적 환경의 소녀의 인간성 회복 심화, 자연회귀 이미 지 표현	-자연회귀의 이미지 표현 위한 기본적 컬러 갈색, 브론즈 표현 -독특한 질감과 색채, 형태, 형식을 통한 부적합한 요소의 결합 -크기의 파괴와 변형으로 부적합한 요소들의 결합표현 -아이라인 및 눈썹 부분화장 표현	갈색(YR) 파랑(B) 분홍(RP) 초록(GB)	수성컬러, 브러시, 인조 속눈썹, 비즈, 아쿠아 새도우	
		유희 귀여운 미니마우스는 만화적 캐릭터를 연 상시키는 형태로, 사 탕을 모아놓은 듯 한 헤어 장식과 어울리 는 깨끗한 피부 톤에 사탕형태 유지하여 오렌지색 컬러를 눈 부분에 동그란 귀여 운 형태로 표현	-큐트한 컬러, 팝아트적 표현,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 표현 -과학 기술적 요소와 재미의 혼합을 통한 퍼플로지의 표현 -만화적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다양한 색상표현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눈썹의 위치를 변경하여 배치	검정(BK) 주황(YR) 빨강(R)	수성컬러, 브러시, 인조왁스, 인조 속눈썹, 아쿠아 새도우	

주조색을 통해 조화로운 혼합표현을 하였다. 자연스러운 립라인이 아니라 명도가 높은 색을 이용하여 입술 크기를 극적으로 축소시켜 빨간 입술을 표현하였다. 질감은 매트하고 글로시한 느낌과 투명하고 차가운 이종적 이미지의 피부색 표현과 흰색의 가면을 착용한 듯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2) 작품 II - 에스키모의 외출(Out of the Eskimo)

지역화 요소를 이용하여 <표 2>는 제 3국의 전통적인 인속적 형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몽골인 이미지 메이크업의 구성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였다. 크리스탈 눈 모양 형태의 콜라주를 이용한 입체적 효과와 색을 통한 면의 경계를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형태를 통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고 자연스런 입술 라인과 동양적 느낌의 얇은 눈썹 선을 통해 절제된 느낌을 보여주었다. 차가운 느낌의 크리스탈 얼음형태 결정을 통해 콜라주를 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중앙아시아의 몽고인들

은 추운 날씨로 인하여 찡그린 듯 한 느낌의 이미지로 이중적 눈썹을 그리는 특징이 있는데, 눈썹위에 크리스탈 눈 모양 형태의 콜라주를 이용한 한 개의 눈썹을 그려서 2개의 이중적 눈썹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인종적 특성을 바탕으로 몽골리언 뷰티로 얼음 결정의 표현 소재를 통해 차가와 보이는 것을 강조한 메이크업이다. 눈썹 부분에도 눈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소금형태의 특수효과 소재를 부착하여 표현하였다. 색채는 선명하고 밝은 색의 새도우를 이용하고, 세밀한 눈 화장을 생략하여 서구적 메이크업과 비교해 볼 때, 소재, 질감, 형태, 색채 면에서 비교되는 특징을 지닌다. 질감은 건조하고 무거운 느낌의 흰색 파우더를 이용하여 차가운 느낌을 연출하고, 눈과 서리가 묻은 듯 한 입술을 연출하였다.

환경보존이나 사라져가는 인간성 회복의 심화로 인한 자연 회귀를 표현하였다. <표 3>에서 작품 III은 강한 캐릭터 생성을 통한 이질적 소재들의 결합과 내추럴 색상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의 조형 요소로 부적합한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질적 소재의 콜라주를 통한 형태와 다양한 점과 선의 결합과 혼합한 형태로 눈썹과 새도우, 아이라인의 부분화장의 강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형태는 갈색의 점을 이용하여 새도우를 하였으며, 눈 밑에는 초록색 인조 속눈썹을 표현하여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 모습을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눈썹의 앞머리 부분은 일본의 아이누족의 눈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일자 형태로 나타냈다. 색채는 과학 기술적 요소의 기본 페이스는 갈색이나 브론즈로 내추럴 색상을 통해 표현한다. 질감은 자연 회귀로의 표현을 하기 위해 나무 질감의 소품과 어울리는 피부 표현을 하였다.

3) 작품 III - 자연으로의 귀환(Return to Nature)

<표 2> '민속적 요소' 디자인 이미지 구성 및 완성작품

스타일화 이미지	작품	스타일화 이미지	작품
			
작품 I. Courtesy of Multinational Girl		작품 II. Out of the Eskimo	
표현요소	전통적인 동양의 다문화 이미지를 차용하여 절충과 혼합의 민속적 요소를 색채에 적용한 점과 면의 조화로운 결합	표현요소	차가운 얼음과 중앙아시아 몽골인 이미지의 전통 구성방식과 전통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색채에 의한 선과 면의 결합
표현재료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숯과 노끈, 수성칼라, 브러시 등	표현재료	메이크업 베이스, 화이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파우더, 케익타입의 새도우, 립스틱, 케익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크리스탈 결정, 눈 결정

4) 작품 IV - 귀여운 미니 마우스(Cute Minnie Mouse)

만화적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미니 마우스 형태로, 사탕을 모아놓은 듯 한 헤어 장식과 어울리는 깨끗한 피부 톤에 사탕의 형태를 유지하여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오렌지색을 눈 부분에 동그란 귀여운 형태로 표현하였다. <표 3>에서 작품IV는 선과 면의 적절한 조화와 절충을 통한 형태로 절충과 혼합성을 얼굴의 이목구비를 무시하고, 눈썹을 비정상적인 위치에 배치하여, 부조화스러운 만화적 캐릭터를 상상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와 채도 높은 색상 표현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 기존의 미에 대한 일정한 규칙과 기본에 절대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현존하지 않는 서로 다른 의미들이 혼합되어 충돌하는 것으로 상호텍스트적인 경계가 무너져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색채는 자연의 과학 기술적 요소를 통하여 큐트한

컬러와 비비드 톤의 색상과 글로시한 느낌으로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을 주는 표현을 하였다. 질감은 글로시하면서 깨끗하게 피부 표현하였으며, 다른 곳의 피부와 피부 톤의 차이가 나지 않게 세밀한 블렌딩을 통한 피부 표현을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21세기 메이크업 디자인 경향은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해 시간, 계층, 지역적 경계의 해체를 통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해 과거의 역사적 모티브를 다양하게 혼합한 혼성모방 및 다양한 이미지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본래의 의도나 개념은 상실한 채 주변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탈 장르화 접근을 보인다. 이분법적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을 뛰어넘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실현

<표 3> '과학기술적 요소' 디자인 이미지 구성 및 완성작품

스타일화 이미지	작품	스타일화 이미지	작품
			
작품 III. Return to Nature		작품 IV. Cute Minnie Mouse	
표현 요소	자연의 이미지 요소를 차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인 이미지의 자연 색채에 의한 다양한 점과 선의 결합	표현 요소	만화적 캐릭터 이미지 요소를 차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큐트한 색채에 의한 다양한 선과 면의 배치와 결합
표현 재료	메이크업 베이스, 브론즈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시 등	표현 재료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컬러 수성물감, 립스틱, 케익 아이라이너, 인조속눈썹, 브러시 등



하려는 동양의 미의식인 꾸미지 않는다는 상대 개념이 공존함으로써 이탈되는 탈 중심적 모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작품은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 4점으로 탈 장르화를 조형미 분석에 따라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하게 디자인 하여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 의상과 같은 이미지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어와 조화롭게 하여 인체의 조형 예술작품으로 재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품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탈 장르화, 다원화, 융합화, 유희화의 특성이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탈 장르화는 경계의 해체성과 대중화의 절충과 혼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탈 장르화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정서, 생활습관 등을 반영한 다문화 시대의 문화적 열린 사고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공감하는 디자인이어야 함을 인지하였다.

넷째, 작품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응용한 메이크업은 조형적 예술의 차원에서 다원성 요소를 가미하여 또 다른 새로운 창작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다섯째, 다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한 현대적 메이크업 디자인을 통해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21세기 탈 장르화를 통한 열린 개념의 미적 요소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 디자인 개발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무궁 무진 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추하여 발전하는 문화적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의 예술 개념이 도입되어 복잡한 여러 양상이 혼재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다원성과 장르를 넘나드는 탈 장르화 특성을 통해 그 동안 인

정받지 못했던 소외되었던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의 소통으로의 미미한 시도를 하여 미적 특성으로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특성의 탈 장르는 디자인 및 조형적 특성과 표현양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조형요소와 표현방법 및 디자인의 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의 하이브리드 환경은 패션과 메이크업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패션 및 뷰티산업 분야에 다양한 변화 유형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유형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1) Daniel H. Pink(2005),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New York: Riverhead Books, p.75.
- 2) 김연순 외(2008), *하이브리드 컬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11.
- 3) 허정선(2010),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의 혼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1), pp.108-109.
- 4) Edward Burnett, Tyler (1958), *Primitive Culture*, New York: Harper, p.1. (2010),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London: Cambridge Press, p.1.
- 5) Tsuneo Avabe 편저, 김인호 역 (1999), *문화인류학의 명저*, 서울: 자작나무, p.4.
- 6) Raymond Williams., op.cit., p.13.
- 7) Ibid., pp. 67-68.
- 8) 서자연(2009), “현대 미술의 다층적 평면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사진, 회화, 성유예술의 매체적 혼용”,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6.
- 9) 이일형(1995), “현대 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 pp.35-36.

- 10) Richter, Gerhard.(2006), Gerhard Richer: Portraits, Distrubuted Art Pub Inc, p.109.
- 11) 박성봉(2006), *대중예술과 미학*, 서울: 도서출판 일빛, p.9.
- 12) John Storey(2006),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Univ of Georgia Press, pp.208-211.
- 13) 이봉덕, op.cit., p.26.
- 14) Daniel H. Pink(2005), *A Whole New Mind: Why Right-Brainers Will Rule the Future*, Riverhead Books , p.75.
- 15) Ibid., p.147.
- 16)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258.
- 17) 최정호(2001), *새로운 예술론 편: 21세기 한국 문화의 전망*, 서울: 나남출판, p.155.
- 18) 백정현, op.cit., p.46.
- 19) John Storey, op.cit., p.102.
- 20) 권택영, 윤도근(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pp.397-398.
- 21) 고윤정, 김민자(2010),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문화권력과 패션에 대한 연구”, *복식학회지*, 60(2), pp.81-85.
- 22) 오창섭(2002), *디자인과 키치*, 서울: 시지락, p.194.
- 23) 이윤진, 박명희(200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복식학회지*, 53(5), p.34.
- 24) 채금석(2004),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된 구미 미학”, *복식학회지*, 54(3), p.114.
- 25) 양희석(1988), *예술철학(上)*, 서울: 자유문고, p.40.
- 26) Renato Poggiolli(1962), *Teoria dell'ate d'avanguardia*, Bologna: Il Mulino, pp.68-69. 박상진 역(1996), *아방가르드 예술론*, 서울: 문예출판사, pp.12-25.
- 27)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학회지*, 22, p.75.
- 28) 한명숙(1999), *마키아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p.11.
- 29) Dominique Paquet, 지현 역(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pp.49-73.
- 30) 이경은(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 31) Victoria Jackson(2000), *Make up Your Life*, New York: QVC Publishing, Inc. p.17.
- 32) 조규화(199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2), p.257.
- 33) 김인혜(2004), *기초디자인: 점 / 선 / 면*, 서울: 미진사, pp.144-146.
- 34) W. Kandinsky, 차봉희 역 (2004), *점 · 선 · 면*, 서울: 열화당, p.47.
- 35) 박정신(2008), “뵐플린의 양식 개념에 의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표현형식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
- 36) 김인혜, op.cit., p.105.
- 37) 박정신, op.cit., p.15.
- 38) 김인혜, op.cit., pp.265-267.
- 39) Ibid., p.40.
- 40) 이수인(2005),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 표현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6.
- 41)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p.172.
- 42) Joanne Richmond(2008), op.cit., pp.29-30.
- 43) Ibid.
- 44) 박정신, op.cit., pp.17-18.
- 45) Scott Barnes, op.cit., pp.10-20.
- 46) Scott Barnes, op.cit., pp.24-25.
- 47) 이화순 외(2003),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p.32-33.
- 48) 양덕제(1998), *최신 화장품학*, 서울: 장업신보, p.62.
- 49) 김귀정 외(2007), *실전 메이크업*, 서울: 청구문화사, p.153.
- 50)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울: 현문사, p.239.
- 51) 김귀정 외, op.cit., p.155.
- 52) 정현진(2004), *미용문화사*, 서울: 광문각,

- pp.182-185.
- 53) 김선희, 차귀옥(2006), *실용메이크업*, 서울: 훈민사, p.115.
- 54) 하루야마 유키오, 임희선 역(2004), *화장의 역사*, 서울: 사람과 책, pp.66-69.
- 55) 김귀정 외, op.cit., p.160.
- 56) 장미숙, op.cit., pp.412-418.
- 57) 이경은, op.cit., p.186.
- 58) 이수인, op.cit., pp.55-58.
- 59) 이경은, op.cit., p.187.
- 60) 김동호(2006), “현대미수에 있어서 혼용된 오브제와 하이브리드 오브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7.
- 61) 이일형, op.cit., p.37.
- 62) 하미희(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세계 4대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 63) Lee, C. Susan, op.cit., pp.5-10.
- 64) 김옥동(2004),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민음사, p.머리말.
- 65) John Storey, op.cit., pp.242-244.
- 66) Lee, C. Susan, op.cit., pp.5-10.
- 67) Amy de la Haye(1996), *The Cutting Edge: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Hardcover), USA: Penguin. p.11, 재인용.
- 68) 이윤정, op.cit., pp.91-100.
- 69) 이경아, 전혜정(2004),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1)”, *한국복식학회지*, 54(1), p.143.
- 70) 장만한, 미학대계간행회 편자(2009), *현대의 예술과 미학: 제 3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267.
- 71) 김선영, 임영자, op.cit., p.158.
- 72)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p.410.
- 73) 김지연, 이경희(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학회지*, 6(1), pp.9-16.
- 74) 하미희, op.cit., p.35.
- 75) Quant Mary, op.cit., p.16.
- 76) 이봉덕, op.cit., p.69.
- 77) 이경은, op.cit., p.140.
- 78) 이재성(1997),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민족사, p.15.
- 79) 하미희, op.cit., pp.48-49.
- 80) Scott Barnes, op.cit., pp.10-20.
- 81) 하미희, op.cit., pp.49-50.
- 82) Joanne Richmond, op.cit., p.29.
- 83) 서명희(2003), “199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에스닉룩 메이크업 영향”, *인체예술학회지*, 4(2), p.293.
- 84) 이승민(2003), “페미니즘 시각에서 바라본 메이크업 연구”, *인체예술학회지*, 4(1), p.283.
- 85) 주명희(1992),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외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p. 124.
- 86) 이윤정, op.cit., pp.91-100.
- 87) 박 진, op.cit., p.5.
- 88) Edward O. Wilson(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Alfred A. Knopf, p.46.
- 89) Peter Weingart & P. Pansegrau(1999), “Reputation in Science and Prominence in the Media: The Goldhagen Debat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8, pp.8-10.
- 90) 박 진, op.cit., pp.4-5.
- 91) 박성봉, op.cit., p.65.
- 92) Dorothy Michelson Livingston(1978), *Michelson, Artist in physics*, Science Technology & Humanities, 1, pp.187-192. 홍성욱(2008), *융합시대의 과학문화: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3. 재인용.
- 93) Dorothy Michelson Livingston, op.cit., p.125.
- 94) Bazaar, October, 2005, p.344.
- 95) Rutsky(1999), *High Techne*, Minnesota press, p.158.
- 96) 한명숙, op.cit., pp.21-22.
- 97) 이민정, op.cit., pp.46-59.
- 98) Scott Barnes, op.cit., pp.10-20.

- 99) Ibid., pp.22.  
100) 이경은, op.cit., p.131.  
101) 향장(2002), 서울: 아모레, 2002. 2.  
102) 이경은, op.cit., p.69.  
103) 퍼놀로지(fun+technology), 재미와 기술의 결합, 위키 백과사전, (검색일. 2010. 10. 25),<http://ko.wikipedia.org/wiki>
- 104) 김지희, 유태순(2007),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문화 감성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7(8), p.7.  
105) 방기정, 김경희, op.cit., p.74.
- 
- 접수일(2012년 2월 23일),  
수정일(1차 : 2012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2년 3월 22일)